

귀하신 동역자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귀한 동역에 감사드리며 문안 인사드립니다.
언제 다시 팬데믹이 와서 선교를 할 수 없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버지께서 허락 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거의 2월 한 달 동안 저희 부부가 장티푸스로 고생을 했습니다. 조 선교사는 연거퍼 두 번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더 힘들어 했습니다. 잔지바 부통령께서도 코로나로 돌아가셨다고 하고, 정부 요인 여러 명도 갑자기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정확한 사인을 발표하지 않아 모릅니다. 그러나 요즘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많이 쓰고 다니고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각처에서 오기 때문에 항상 소독을 철저히 하지만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잔지바르 4, 6학년 국가시험 1등 감사

기다리던 국가시험 결과가 1월26일 발표가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4학년은 440학교 중 1등했고, 6학년은 397개 학교 중 1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4학년에선 전체 학생 중 1등에서 10등 안에 2명이 들어갔습니다.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고 동역자님들의 뜨거운 사랑의 결과임에 감사를 드립니다. 작년 7월부터 합숙 하며 밤이면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였는데, ㅇㅈ람 땅에서 기독교학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6학년 첫 시험 시간 때 여자 친구 한명에게 귀신이 들어가 계속 소리를 지르자 아이들이 모두 긴장을 했었습니다. 당황한 시험 감독관이 기도해 줄 것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안수 기도를 하자 귀신이 떠나고 시험을 잘 보았습니다. 1등 발표를 듣고 너무 기뻐서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북을 메고 노래를 부르며 동네 한 바퀴를 돌고 왔습니다. 2월 12일은 주말 시험을 보는 날이었는데 새 가방을 받고 얼마나 좋았던지, 아이들이 가방을 메고 시험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방 내려놓고 시험 봐도 된다고 했습니다.

군부대 훈련소 우물 성공

산꼭대기에 군부대 훈련소가 있는데 식수가 없어서 군인들이 먼 곳으로부터 소 달구지에 물을 길어다 쓰고 있었습니다. 1월 7일은 35메타를 파던 중 우물기계 부속이 튀어 나가서 기술자 얼굴을 때려서 급히 병원에 가는 위험한 일도 있었습니다. 지반이 모래여서 쉽게 무너지는 등 여러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공을 했습니다. 장군들도 군인들도 모두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우물을 후원해 주신 권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3279명이 공부하고 있는 추이니 초, 중학교 우물을 파고 있습니다. 60 메타를 파고 충분한 물이 있다고 케이싱을 박았습니다. 그렇지만 물이 충분치 않아서 다시 파기 위해서 박은 케이싱을 뽑으려 하지만 쉽게 빠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곳도 모래땅이어서 자주 무너졌습니다. 기계도 고장이 나서 백방으로 부속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물이 성공 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신구약 성경 통독집회

1월 7일부터 13일 까지 신구약 성경 통독을 스태프22명과 함께 하였습니다. 새벽 6시부터 밤 11시까지 강행군이었지만, 카톨릭 선생님들이 개종하고 병이 낫고 불을 받은 선생님도 있었습니다. 올 해도 말씀으로 무장된 선생님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겨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월 14일 제 10회 장애우 섬김의 날 쌀 600포 카타르 한인교회 후원으로 코로나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600명의 장애우들에게 25키로 쌀 한 포대씩을 선물했습니다. 두 다리가 없는 장애 청년이 감사하다고 한 팔은 땅에 짚고 한 팔을 올려 제주를 보여 주는데 그 손을 붙잡았습니다. 잠시 주님께 다시 한 번 장애우들의 손을 잡아 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곳의 장애우들은 각 장애별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맹인, 알비노, 손, 팔, 다리, 정신 지체장애우등 정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는데, 이렇게 많은 장애우들은 본적이 없다고 도움을 줘서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정부에 등록된 장애우들은 약1500명 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장애우들이 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등록해 보았자 도움을 주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한 가정에 장애우 한명도 힘들 텐데 어떤 가정은 2명 3명씩이 있습니다. 장애우들과 장애우 가족들이 쌀을 받고서 하는 말이 너무 감사하다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리고 또 해 줄 수 없냐고 물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들은 쌀을 나눠 주는 것도 좋지만 장애우들을 위한 학교를 만들어서 교육시켜 자립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기도제목>

1. 중학교 부지를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도록
2. 학부모들이 학비를 내지 않고 다른 학교로 도망을 갑니다. 이웃학교에서 저희 학생들 집만 골라서 아이들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일 들이 없도록
3. 추이니학교 우물 성공을 위하여
4. 어머니와 자녀들을 위하여
5. 저희 부부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위하여

-탄자니아에서 정부진, 조 그레이스 드림-



은혜한인교회 선교 소식

2021년 4월 4일

선교사 현황

53개국 323명

자체파송 74%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히12:2)”

샬롬!

오늘도 우리를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곳 케냐 킬리피는 오후에 밖에 온도를 재면 40도가 훌쩍 넘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 메마른 땅에 먼지만 날리고, 요즘에는 수도가 자주 끊겨서 길에는 물통을 들고 여기저기 우물로 물 길러 다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른비와 늦은비를 기다리는 농부의 심정으로 다들 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이 시작되고 있는데, 케냐는 2월 말에 첫 번째 주문한 양이 도착한다더니 아직 언제 시작될 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백신을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대부분의 케냐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다른 질병이 온다, 불임이 된다, 죽는다는 등의 소문으로 접종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 한 지방이나 시골에는 감염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이 아직까지 거의 없기 때문에 경각심이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팬데믹 가운데서도 오늘날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케냐의 모든 학교가 지난 1월 4일 재개학을 하였습니다. 개학 후 학교에서 많은 감염자가 나오지는 않았지만(공식적으로), 청소년 임신과 경제적 또는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에 돌아오지 않은 학생이 수천명에 이릅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고등학교 기숙사 화재사건이 심심치 않게 보도되고 있는데 4월에 있을 수능시험에 대한 불만을 품고 학생들이 고의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입니다. 약 1년간 학교가 문을 닫히다 보니 여기저기서 부작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개학 전부터 전교생에게 나누어 줄 마스크를 만들고, 거리유지를 위해 워터포인트를 교실 앞마다 설치하며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학교들이 마실 물조차 없는 환경에,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학교도 많아 위생적으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이들도 학교 내에서는 철저히 마스크를 쓰지만 교문을 나서는 순간 벗어던지는 현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킬리피에서 학교를 통한 감염이나 집단감염이 나오지 않은 것이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 은혜로 또 한군데 교회 건축이 진행 되었습니다. 지난달에 헌당예배를 드렸는데 그 동네에 있는 여러 이웃 교회의 목회자들이 참석하여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염소를 잡아 온 성도가 함께 점심을 먹고, 염소다리와 밭에서 따 온 파인애플은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 저희 선교사 가정에 선물로 주었습니다. 또한 한국에 있는 한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마음을 모아 케냐 친구들을 위한 헌금을 보내주어서 헌당예배 드리는 교회의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학용품과 먹거리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눈물의 기도와 헌신, 헌금, 땀 흘려 수고한 일꾼들,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교회를 넘어뜨리고 없애기 위해 공격을 하고 있고, 우리는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지키기 위해 눈물과 땀을 흘립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가 없는 곳에 계속하여 교회를 세워나가기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때마다 일마다 꼭 필요한 은혜로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섬기시는 교회와 선교지를 위하여 늘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고 축복하며...

<기도제목>

1. 십자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2. 유치원, 초등학교가 3월 19일까지 무사히 한 학기 잘 마치도록
3. 신학교가 안전하게 열려 13기 학생들이 잘 졸업할 수 있도록
4. 올해 건축될 교회들을 위하여
5. 저희 가정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기도해주세요.

-케냐 황광식, 원지혜 선교사-

광고

Amazon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Grace Korea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smile.amazon.com/ch/95-3861464.



대한예수교 장로회 국제총회
은혜한인교회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

1-714-446-6200
gkcgmiusa@gmail.com
www.gmimission.org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사랑합니다.
코로나로 일상이 바뀌고 예전과 같지 않은 속에서도 우리 믿는 이들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풍요와 만족을 누리고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인사 드리게 된 캄보디아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입니다. 주님이 주신 소명을 받고 주님의 때에 캄보디아로 오게 하신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사역이 옆으로 많이 팽창하진 못했지만 긴 세월 속에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게 하시며 인내와 눈물로 주 앞에 무릎 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무엇보다 하나 주의 은혜 아니고선 될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기에 모든 부분에 주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구촌 온 지역이 코로나 파도에 휩싸인 것 같이 이곳 캄보디아도 그 파도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간 수 차례의 학교 휴교령과 모임 금지로 많은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도리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 보며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데에 더욱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을 보며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저희 쓰나오 은혜교회는 현지인 전통 나무집 마당에서 2012년 2월에 찬양을 가르쳐 주다가 그 해 5월 말부터 예배를 드리기 시작 하였습니다. 재정도 별로 없고 사역자도 없는 상황에서 지금까지 흘러 왔으나 그 당시는 어린 유치부 초등 저학년의 아이들이 지금은 초등학교학년, 중, 고등학생이 되었습니다. 성경공부 반에 들어오면 떨어지거나 믿음이 더디 자라는 것 같고 매번 발갈이만 하는 듯한 속에서도 몇몇의 영혼들을 꾸준함으로 주의 성전에 보내주심은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얼마 전부터 달란트 잔치를 안 한다고 교회 출석을 하지 않던 믿을 없던 몇 아이들이 다시금 교회에 나오기 시작 했습니다. 안 나온지 근 1년 반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도 지금 사춘기 시기를 지나고 있어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지만 그리스도 안에 참 백성으로 주의 성품에까지 자라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기도제목>

1. 선교사가 성령으로 충만, 믿음 충만, 지혜 충만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2. 생활하고 사역하는데 물질의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3. 이후로 주께서 쓰실 만한 작은 공간이라도 매입하여 쓰나오 마을을 중심으로 충실히 주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4. 좋은 현지 사역자와 함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5. 교회친구들이 환경과 상관 없이 믿음을 잃지 않고 주께 붙어 있어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며 주님에게까지 자라도록 기도해 주세요.
6.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샤론이가 세상 속에서 세속화에 휩쓸리지 않고 주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도록 기도해 주세요.

-캄보디아 김광석 이영미 선교사-

두메 산골



0309

평안하시지요?

저는 몸에 면역력이 떨어져서인지 다시 감기가 와서 콜록거리고 있습니다. 몸은 연약해지고 있지만, 미래를 향해가는 저에게는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이십년 후 교회를 이끌고 갈 사역자들도 양육해야 되고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이곳은 요즘 농장일로 모두 다 바쁩니다. 몇 만평의 땅을 개간하고 여러 과수를 심고 있습니다. 많은 과수 중에 특별히 배나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곳 배에 한국배를 접붙혀서 한국 배를 재배하려고 합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배우며 힘쓰고 있습니다. 농장은 호두, 체리, 사과, 모과, 대추, 자두, 포도, 벚지등의 나무가 있습니다. 많은 소를 키우기 위해서 밭도 개간해서 목초를 심습니다. 올해에는 어린 아이들에게 시간과 물질을 더 많이 투자해서 사백여 명의 주일학교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가서 설 때에 부끄럽지 않도록 많은 열매를 주님 앞에 내놓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힘써 나아갑니다.

0319

산 넘어서 하루 밤 지내고 어제 밤 한시에 산 넘어 무사히 숙소로 돌아 왔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남쪽 아프카니스탄 국경 쪽으로 제자들과 사역을 나갑니다. 주님 오실 날은 가깝게 다가오고 참으로 할 일은 많은 대 주신 사명 다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깨어서 힘써 준비해오시는 주님 맞이 해야 되겠습니다. 오시는 주님 함께 맞이 할 수 있기를 기원 합니다.

-타직스탄 최OO 선교사-



샬롬! 예루살렘에서 평안을 전합니다.

성서의 땅, 이스라엘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나누는 것은 영적전쟁입니다. 나 자신의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영적 전쟁이고, 이 땅 가운데서 일어나는 영적 싸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며 예배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 히브리대 옆Mt. Scopus에서 예배하며 아웃리치할 때, 주님께서 믿는 유대인 2가정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같았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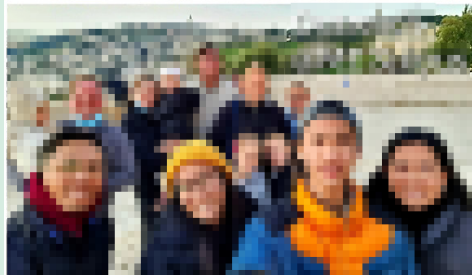


Korean new year par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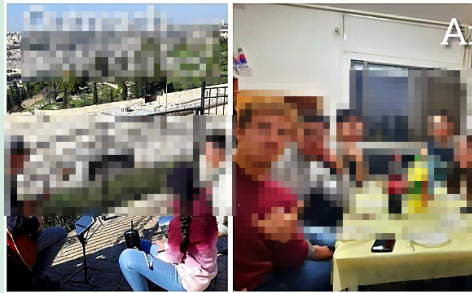
노아: 매주 전도하러 나가는데, 복음을 전하는 상황가운데 더욱 더 강한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먼저 말을 걸 어보아도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 있는 두려움 때문이었을까요? 거절 당할까 무서웠을까요? 주님, 저에게 믿음을 주소서! 우리는 전도와 함께 그 장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찬양을 통해서 주님이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 높임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녹: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나 어려운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저희는 매주 한번씩 나가서 야외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들이랑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며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낯선 사람들 앞에서 예배나 전도를 하는것이 너무나 어색하게 느껴지고 많이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전도하기를 계속하고 싶습니다. 저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일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내: 구정 파티와 노방전도를 통해, 믿는 자들의 동역이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파티에 다녀간 영혼들이 주님 사랑과 지체됨의 사랑을 속히 느끼기를 소망합니다. 눈물로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이들에게, 기쁨으로 영적 열매를 맺게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BBQ party



Arab friends

<기도제목>

1. 가정의 영적 제단과 개개인의 영적 제단이 견고히 세워지게 하셔서, 우리 각자를 향한 주님의 부름의 상을 좇아 힘있게 달려가게 하소서.
2. 매주 한번 드러지는 가족 노방 찬양과 전도가운데 주님의 임재가 있게하시고,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예배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3. 지속적으로 한영혼 한영혼을 향한 기도와 복음의 씨앗을 뿌리게 하시고, 낙담하거나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한걸음 한걸음 전진하게 하소서.
4. 구정에 초대된 친구들을 위해: 오므리, 졸디, 노암, 요탐 & 야엘 가족, 야코프, 마탄, 멜렉, 해디, 야라, 베나
5. 준비된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가정 셀 모임이 시작되게 하소서.
6. 현재 섬기는 유대인 공동체 Shemen Sasson (Pastor Yonatan)에 영적 돌파 허락하소서. 거의 1년간 지속된 온라인 Zoom 예배로 인해 침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스라엘 장석호 최신혜 선교사-

편찮으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1. 네팔 이예신 선교사- 지난 9개월 동안 앓았던 악성 림프암의 6차 항암 결과 모든 림프암 세포들은 다 없어지고 항암제도 없는 혈액암은 그대로 있게 하셔서 날마다 제 낱수를 계산하며 전능자만을 바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 첼라빈스크 김봉년선교사- 5월11일부터 7주간(주 5일)전립선 암 방사선치료를 합니다. 암이 완전히 제거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3. 터키양창모 선교사- 파킨즈병 가운데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간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깨끗함을 받도록 기도해 주시기바랍니다
4. 터키 최지섭 이해영선교사- 조직검사 결과 왼쪽 영치빠로 암이 전이 되었습니다. 암으로부터 완전히 해방하여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길 기도합니다.
5. 베트남 강OO- 작년 빗길에 오토바이가 미끌어져서 쇠골에 핀을 받게 되었는데 쇠골이 속히 붙어서 핀을 제거하고 재활을 통해 건강과 일상이 회복되기를
6. 인도 정OO- 비중격 만곡증이라는 코 연골이 한쪽으로 휘어져서 코막힘과 목에 항상가래가 붙어 있는 병으로 원래는 수술을 해야 하나 약물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이병이 깨끗하게 치료 되도록
7. 아르헨티나- 유다연(10살, 유성두 선교사 첫째 딸)이 Covid19에 감염되었습니다. 후유증없이 속히 완치되게 하소서.